



착유우의 산유능력 및 분만일자 등을 고려하여 사양관리를 하되 건강상태가 안 좋거나 산유능력이 떨어진 개체가 전체 우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때는 사양표준을 재조정하여야 한다.

산유량만 근거한 농후사료의 지나친 급여는 사료값 인상에 의한 경제성 뿐만아니라 소 유기관리에도 오히려 손해다. 경영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육성우 관리 및 착유우 관리에 신경을 쓴다.

착유중인 소는 변화에 민감하므로 배합사료나 조사료를 바꿀 때에는 반추위내 미생물이 새로운 사료에 적응할 수 있도록 15일 이상에 걸쳐 서서히 바꾸도록 한다.

◆ 방역 및 위생관리

계절변화에 의한 송아지의 호흡기 증세와 설사 발생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. 어린 송아지의 경우 찬공기가 바로 송아지 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깔짚을 충분히 깔아주고 낮에는 외부온도 상승에 의한 가스 발생이 높으므로 환기에 신경을 쓴다.

분만초기에는 대사성질병인 4위 전위 및 식체, 유열 케토시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. 매일 산유량 및 사료섭취량, 몸의 상태 등을 유심히 관찰하여 질병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한다. 신생 송아지는 질병 및 영양공급을 위해 분만 후 최대한 빨리 초유를 급여하고 분만우는 스트레스를 신속히 회복할

수 있도록 영양관리 및 사양관리에 주력한다.

유방염 발생과 유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착유기계 및 파이프라인, 진공압, 라이너호수, 맥동기 등 착유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질 저하 및 유방염 발생 위험이 있는 기계장치와 부품은 신속히 교체한다. 유방염우는 신속히 격리시켜 빠른 시일내에 지속적인 치료를 해주어 착유시 다른 소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.

◆ 송아지 설사

낙농을 하면서 송아지 설사는 육성우 사양을 하는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이며 그 발생 빈도와 증상은 아주 심각하다. 설사 증세를 보이는 송아지는 증상이 심해지면 탈수, 체액내 전해질농도 불균형, 체조직과 혈액내 산 과다 등으로 인해 허약해지고 진행됨에 따라 혼수상태로 갈 수 있다.

설사로 폐사하는 송아지는 설사 보다 탈수, 산중독증, 전해질 불균형과 저혈당증에 의한 것이다.

송아지 설사는 발병경로가 감염성과 비감염성에 의한 것으로 그 발병 원인이 매우 복잡해서 예방 치료 및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. 비감염성의 원인으로서는 주위 환경(습도, 외풍이 있는 우사, 불결한 우사, 스트레스)과 영양적인 요인(과비, 저질 대용유)이 있다.

◆ 초지 및 사료작물

농기계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기계작업 전에 수리를 신속히 한다. 목초과중 및 손상된 초지에 보파를 한다. 해동 후 땅의 수분이 말라 작업이 가능하므로 3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뿌리되 3월말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3월 하순경에 연간 시비량의 1/3 정도를 시비한다. 외국 조사료 가격이 오르고 구입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최대한 자가 생산 조사료량을 늘려나간다. (㉞)

(필자연락처 : 041-580-3384)